

조선어 체언령형태의 의미기능적특성

안 정 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문법구조도 짚었습니다. 문법구조가 짚었다는것은 언어가 그만큼 발전되었다는것을 말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권 102페이지)

우리 말 문법구조가 체계정연하고 치밀하게 발달되어있는것은 체언령형태가 수행하는 문법적의미기능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조선어체언령형태는 자기의 의미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조선어체언령형태의 의미기능적특성은 무엇보다먼저 령형태가 아닌 다른 문법적형태들과의 대비속에서 찾아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의의 문법적형태는 어간에 일정한 토가 교착됨으로써 이루어진다. 해당 형태가 수행하는 의미기능은 그 형태를 이루는데 참가한 토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것은 우리 말에서 토 그자체가 일정한 문법적의미를 가지고있는 언어수단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조국애》라는 명사에 주격토 《가》가 덧붙어서 이루어진 《조국애가》라는 문법적형태는 주격의 의미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그것은 구체적인 문장속에서 그대로 발현되게 된다.

례: 《푸른 산, 푸른 들》, 정녕 이 말속에는 우리 장군님의 더없이 숭고한 조국애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그러나 체언령형태 즉 우리 말의 령형태는 그자체만 가지고서는 어떠한 문법적의미기능을 수행하겠는지 알수 없다. 다만 일정한 문장속에서 다른 일련의 문법적형태들과의 려관을 통하여 해당한 체언령형태의 의미기능을 알수 있다.

실례로 《기상 0》만으로써는 아무러한 문

법적관계도 나타낼수 없다. 그러나 격범주의 체계로 다른 격형태들과의 려관속에서 일련의 격관계를 나타낼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어떤 격관계를 나타내는가 하는것은 구체적인 문장속에서 확정된다.

례: 훈련장들마다에 멸적의 기상 차넘치고있다.(주격)

한편 《열매 0》이 수범주의 체계속에 들어가면서 《열매들》이라는 복수형태와 대립된다면 그것은 단수의 수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례: 인민사랑의 대지에 행복의 열매들이 무르익는다.(복수)

인민사랑의 대지에 행복의 열매 무르익는다.(단수)

이처럼 체언령형태는 일정한 문법적형태체계의 구성요소로 되어 다른 형태들과의 려관속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은 체언령형태뿐아니라 용언령형태를 포함하여 우리 말 령형태일반의 특성이며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어체언령형태의 의미기능적특성은 다음으로 용언령형태와의 대비속에서 찾아볼수 있다.

용언령형태가 참가하는 문법적형태체계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지는것이 특징적이다.

상체계: 먹0다-먹히다-먹이다

존칭체계: 가시다-0다

시간체계: 주었다-주0다-주겠다

이처럼 용언령형태가 참가하는 상, 존칭, 시간의 문법적체계는 둘 또는 세개의 요소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령형태는 다른 형태들과 구별되는 의미기능을 수행한다. 상체계에서는 피동이나 사역이 아닌 능동의 의미기능을, 존칭에서는 존경에 반대되는 비존경의 의미기능을, 시간에서는 과거나 미

태가 아닌 현재의 의미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체언령형태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체언령형태안에서도 격령형태의 경우와 수령형태의 경우가 심한 대조를 이룬다.

수령형태인 경우에는 용언령형태들의 경우와 같다고 할수 있다.

수체계: 훈장들—훈장0

수체계는 복수형태와 령형태의 두개 요소로서 매우 단순하며 령형태의 의미기능은 단수로서 복수형태와 상반된다.

령형태가 참가하는 문법적체계구조의 단순성, 령형태와 다른 문법적형태들의 의미기능적구별성, 이것은 용언령형태들의 일반적특성이다. 결국 수령형태는 이러한 측면에서 용언령형태들과 공통적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격령형태인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문법적체계구성자체가 복잡적이며 다른 격형태들과의 의미적관련성도 다양하게 맺어지는것이 특징적이다.

우선 문법적체계가 복잡적이다.

규범문법에 준하면 《주격형태, 대격형태, 속격형태, 여격형태, 위격형태, 조격형태, 구격형태, 호격형태》로서 8가지 체계이며 비교격까지 설정한 일부 견해에 따르면 9가지체계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격령형태가 자기의 고유한 문법적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문맥에 따라 각이한 격형태에 해당하는 의미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이다.

례: 우리 장군님 꽃피워주시고 우리 장군님 지켜주신 인민의 락원이 아닌가.(행동의 주체 즉 주격과 같은 의미)

나가자 붉은기 높이 들고 힘차게 나가자!(직접객체 즉 대격과 같은 의미)

선렬들 그 념원 우리 이 땅에 활짝 꽃피우리라.(규정적관계의 대상 즉 속격의 의미)

아니, 그건 아버님 드릴거예요.(행동의

간접객체 즉 여격의 의미)

이 마을 사는 사람들치구 그 어른 덕을 보지 않은게 있을라고요.(행동의 위치 즉 여격이나 위격의 의미)

동무동무 손목잡고 학교가지요.(행동의 방향 즉 여격이나 조격의 의미)

불타는 열정, 억척의 투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병렬되는 대상 즉 구격의 의미)

철수, 너에게도 량심이 있어?(호칭 즉 호격의 의미)

이처럼 격령형태는 다른 격령형태들과 구별되는 자기 고유의 어떤 뜻이 있는것이 아니라 다른 격령형태들중의 어느 하나와 같은 의미기능을 수행한다. 이로부터 격령형태가 나타내는 의미, 수행하는 의미기능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격령형태가 자기 고유의 문법적의미가 없이 주격, 대격, 속격 등 여러 격형태의 의미기능을 수행하는것을 마치도 격령형태가 해당한 격형태를 《대신》하는것처럼 보면서 이것을 하나의 독자적인 하나의 격형태가 아니라 단순한 격의 생략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일부 있다.

생략된 요소가 있는 말마디는 오직 문맥과 장면의 도움밑에서만 리해될수 있다.

그러나 격령형태는 꼭 문맥, 장면의 도움밑에서만 리해되는것이 아니다.

실례로 《애, 손님 오셨다.》라는 문장에서 《손님》은 아무런 격토가 붙지 않은채로 쓰이면서 행동의 주체 즉 주격의 의미를 나타내고있다. 여기에서 《손님》을 《손님이》에서 《이》가 생략된것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손님》이라는 격령형태자체에 동사와 결합하여 일정한 행동의 임자를 나타낼수 있는 기능적잠재력이 있기때문이다.

격령형태가 임의의 격형태의 의미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 형태보다 의미폭이 좁은것은 조선어격형태의 력사적발전과정과 관련된다.

아무 격토도 붙지 않고 쓰인 령형태를 출

발점으로, 바탕으로 해서 여러 격형태가 형성된것만큼 령토가 여러 격토의 의미를 다 가지게 된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격령형태가 가지는 의미기능으로서 문장에서 체언의 다양한 문법적관계를 원만히 나타내는데 불충분하였으므로 그것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밀화하기 위하여 각이한 격형태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의미기능이 수행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주격, 대격, 속격 등의 격형태들의 의미기능은 그것들의 어미라고 할수 있는 격령형태의것보다 더 심화되고 전개되고 정밀화되게 되었으며 의미폭도 훨씬 넓어지게 되었다.

체언령형태의 의미기능적특성은 다음으로 체언령형태안의 각이한 류형들과의 비교대비속에서 찾아볼수 있다.

체언령형태는 그 구체적인 류형과 령토가 덧붙는 체언어간의 품사적성격에 따라 그 의미기능수행에서 일련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첫째로, 격령토와 수령토가 어간뒤에서 각각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고 해당하는 의미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이다.

수령형태는 체언어간의 바로 뒤에서, 격령형태는 수의 뒤에서 해당하는 령토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방직공장치녀들이(복수, 주격)

방직공장치녀0가(단수, 주격)

방직공장치녀들0(복수, 주격/속격/여격...)

그것은 둘째로, 일부 체언적단어들이 령형태로 쓰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라는것이다.

체언에 속하는 단어들이 령형태로 쓰이는것을 보면 그 쓰임회수가 단어에 따라 각이하다. 체언어간의 어휘문법적특징에 따라 형태갯춤이 미약한 단어들은 다른것들에 비해 령형태로 출현하는 경우가 더 적극적이며 지어 오직 령형태로만 쓰인것들도 있다.

그러한 단어들은 특히 불완전명사의 부류에서 찾아볼수 있다.

불완전명사 《겹, 둥, 대, 대로, 족족, 끼리,

나위, 리, 번, 법, 사, 수, 손, 줄, 척, 체》등에서 《겹, 둥, 대, 대로, 족족, 끼리》와 같은것은 아무런 격토도 붙지 않고 령형태로만 쓰이며 그 나머지것들은 주로 주격형태를 취하는데 그치고 그밖에 대격이나 여격, 속격, 조격형태들을 일부 취할수 있을뿐이다.

겹-오후엔 거리구경도 할겹 상점에 가자.

둥-밥을 먹는둥 마는둥 하고 다시 작업장에 나갔다.

대-오늘 경기는 63대 59로 압록강팀이 이겼습니다.

대로-이대로야 점직해 어찌 만나나

족족-놈들은 덤벼드는 족족 물고기밥이 되었다.

끼리-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 이룩하자.

나위-더 말할나위 없소.

리-그렇리 있나?

번-토의를 여러번 거듭한 끝에 정수가 길남이와 같이 가기로 략착을 지었다.

법-자네 말을 들어보면 그럴법도 하네.

사-둥글사한 얼굴에는 부드러운 기운이 어려있었다.

수-순간의 실수로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초래될수 있다.

손-그건 그렇다손 치고 자네 얘거나 좀해보라구.

줄-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실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줄 아는 사람이 참된 전사이다.

척-때리면 우는척이라도 하려무나.

체-알면서 모르는체 하지 말고 모르면서 아는체 하지 말라.

일부 불완전명사들의 형태갯춤이 미약하고 그로부터 령형태로 많이 쓰이는것은 그것들의 어휘의미적특성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형태갯춤이 제한적인 불완전명사들을 보면 그 의미가 추상화되어있는것이 특징적이다.

대상에 대한 한정, 행동의 방식, 정도를 나타내는 《만, 만큼, 만치, 뿐, 따름, 폭, 셈, 별, 나위》, 원인, 계기, 가능성, 능력 등을 나타내는 《까닭, 때문, 리, 수, 줄, 김, 서술》, 대상의 출발점, 종착점, 출처, 방향 등을 나타내는 《발, 착, 행, 저, 산, 작, 생, 부, 용》의 대명사들은 다 대상화된 어휘적의미를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때문에 이러한 불완전명사들은 격형태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가지며 일부는 격형태를 전혀 가지지 못하고 도움토와 서술적형태를 가질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불완전명사들은 대상화된 어휘적의미를 나타내는 불완전명사들(이, 분, 자, 놈, 치, 것, 바, 치 등)보다 령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게 되는것이다.

불완전명사부류에는 양태적인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것들도 있는데[양, 법, 체, 상, 번, 성, 터(테), 손(가정의 뜻), 만(가능성)] 이러한 불완전명사들은 매우 추상화된 의미를 나타내므로 격토와 서술토는 물론 도움토도 첨가되는 일이 없다. 이 단어들은 언제나 령형태로만 쓰인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대상적인 어휘적의미를 가지고있는 단어들일수록 격형태와 서술적형태들을 더 체계적으로 갖추게 되고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일수록 격형태나 서술적형태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갖추게 되며 따라서 령형태의 쓰임이 활발해지게 된다.

그것은 셋째로, 체언령형태가 대상적기능과 함께 서술적기능도 수행한다는것이다.

체언령형태는 여러 격형태에 맞먹는 의미를 나타내면서 문장속에서 주어, 보어 등

움직임과 련관되는 이러저러한 대상을 나타내는 기능, 대상적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서술적형태들과 대응되면서 술어나 규정어의 기능도 수행할수 있다.

례: 정치공작원 철호 먼길 떠난다

전송하는 대장의 말 -

《철호, 조심하게! 믿네!》

덤석 틀어쥐는 대장의 손길

심장속에 해발을 일으켜라

(장편서사시 《백두산》)

여기에서 체언령형태들은 다양한 의미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철호》와 《손길》은 주격의 의미를 표현하면서 일정한 움직임의 임자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먼길》은 대격에 맞먹는 의미를 표현하면서 보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대상의 말에 쓰인 《철호》는 호격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내면서 부름말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말》과 《정치공작원》은 서술적기능을 놓고있다. 《말》은 진술관계를 나타내는 맺음형태(말이다)와 대조되면서 술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정치공작원》은 서술적규정형태와 대비되면서 동격규정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밖에도 조선어체언령형태의 의미기능적 특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우리는 조선어의 구체적인 형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우리 말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